

장애인의 돌봄충족과 돌봄서비스 이용실태 및 결정변인

Care for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y: focusing on care Sufficiency and Service Use

이효성*, 고그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가천대학교 문화유산역사연구소**

Hyo-Sung Lee(Sung2000@kead.or.kr)*, Greene Ko(ggm0710@gmail.com)**

요약

본 연구는 돌봄위기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돌봄의 사회화가 확대되었으나 공적 영역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장애인의 돌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고찰한 바 없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첫째, 돌봄의 사회화에 따라 장애인의 돌봄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장애인 돌봄에서 비공식 및 공식적 지지의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및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이용실태와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이용은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의 연구문제를 살펴보았다. 한국복지패널 5차년 자료의 장애인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18세 이상 장애인 중 일상생활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1204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50%의 장애인은 돌봄부족을 경험했으며, 장애인의 77%는 비공식적 체계로부터, 90%는 공식적 체계로부터 어떤 돌봄지원도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돌봄충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돌봄의 사회화로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는 확대되었으나, 이용 수는 평균 1개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의 결정변인을 분석한 결과, 성인 장애인에게 사회적 돌봄 서비스는 비공식 체계에 의한 돌봄의 대체제로 기능하는 반면 노인 장애인에게 사회적 돌봄 서비스는 비공식 체계로부터의 돌봄을 보충하는 보완재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장애 | 돌봄 | 돌봄의 사회화 | 돌봄충족 | 사회서비스 |

Abstract

Recognizing the lack of empirical study that evaluates the influence of social care services on care sufficiency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y, we have focused our study on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hat is the level of care sufficienc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y?, What is the profile of care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y from both formal and informal providers?, What are the service use conditions and determinants of social care service use?. This study analyzed data of 1204 individuals with disability who needed daily assistance from 5th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Results showed that 50% of the respondents experienced care deficit. 77% of the respondents received no care from informal care providers and 90% from formal care providers. Despite social care services brought by the expansion of socialization of care, the average number of social service use on care was less than 1, which suggests that socialization of care did not significantly contribute to care sufficiency. In addition, for people who are 64 or younger, social care services was substituted by care from informal care providers and for those who are 65 or older, social care services supplemented care from informal care providers.

■ keyword : | Disability | Care | Socialization of Care | Care Sufficiency | Social Service |

I. 서론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2011년 현재 전국의 장애인 인은 268만 3천명, 이중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은 261만 1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출현율은 2005년 4.5%에서 2011년 5.47%로 증가했으며 주로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장애출현율이 크게 증가했다. 즉,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애출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장애출현율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1].

장애인구가 지속적인 확대되고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장애인구의 38.8%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돌봄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장애인의 약 45%는 일상생활 수행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장애인의 15%는 필요한 도움을 제공받을 가족이나 돌봄 제공자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돌봄은 사적 관계에 기초한 무급 노동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에 따라 여성의 의무라는 규범이 강해 정책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인구 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돌봄의 공백이 관찰되면서 돌봄은 새로운 사회적 위협으로 인정되었으며, 돌봄의 위기에 대한 사회적 대처로 돌봄의 사회화가 확대되었다.

돌봄의 사회화는 돌봄 노동의 생산과 순환이 가족이라는 전통적인 영역을 벗어나 국가와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섹터로 확장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새로운 사회적 위협인 돌봄 위기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결과로 각국은 자국의 사회 정책적 구조에 맞는 돌봄 정책을 마련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무상보육,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돌봄의 위기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출현하게 되었다.

아동과 노인에 대한 돌봄이 생의 주기 상에 특정 시기로 제한된 시기 특정적 돌봄의 상황인 것에 반해 장애인 돌봄은 장애의 발생 시점부터 사망에 이르는 생의 전 단계에 거친 시기 초월적 상황이라는 점에서 장애인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다. 또한 아동 돌봄과 노인 돌봄은 생의 단계와 연동된 시기 예측성이 높은 정

시적(on time) 요구임에 반해 장애인 돌봄은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 발생의 시기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정시적(off time) 요구이며, 그로 인한 돌봄 제공자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로 인해 장애인 돌봄은 장애인연구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져 왔으나 기존 연구들은 장애를 지닌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돌봄 경험에 집중해 왔다. 이와 같은 접근은 장애인 돌봄의 상황을 가족 내의 사적 영역으로 제한하며,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부모의 개인적 경험을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돌봄의 실태를 지나치게 미시화시킨다는 한계를 갖는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돌봄의 사회화로 인해 장애인 돌봄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확대되었으나 이들 사회적 접근이 장애인 돌봄의 공백을 충분히 보완하고 있는지, 돌봄의 사회화라는 제도목적에 조응해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장애인 돌봄에 충분히 기여하는지 등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장애인 돌봄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첫째, 장애인의 돌봄 욕구가 충족되는지 살펴보고 둘째, 전통적으로 장애인 돌봄을 담당해 온 비공식적 영역과 돌봄의 사회화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장애인 돌봄의 공식적 영역이 장애인 돌봄에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셋째,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및 분석틀

1. 돌봄 및 돌봄 서비스

돌봄은 'Care' 또는 'Caring'의 번역이다. 'Care' 또는 'Caring'에 해당하는 행위를 우리 용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돌봄 대상자의 연령과 욕구에 따라 상이해지는 돌봄 행위의 속성을 민감하게 포섭하기 위해 다양한 용어들로 개념화되었다. 돌봄은 양육, 보육, 부양, 수발, 보살핌 등의 통칭하는 포괄어로,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가 공적 문건에 사용하면서 유사행위를 지칭하는 공식어로 자리 잡았다[2].

돌봄 서비스는 제공 주체의 공식성 정도에 따라 비공

식적 서비스와 공식적 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다. 비공식적 서비스는 가족, 친구, 이웃 등 일차적이고 사적인 관계에 기초해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이다. 따라서 비공식적 돌봄 서비스의 제공자는 주로 가족, 친구, 이웃들로, 규범적으로 돌봄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돌봄의 사회화로 돌봄 주체의 사회적 성격이 강해졌으나 가족은 여전히 돌봄의 주체로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족에 의한 돌봄 서비스의 경우 무급 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나 비공식적 관계에 기초한 돌봄 서비스가 반드시 무급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공식적 돌봄 서비스는 주로 유급 돌봄 노동자에 의해 제공된다. 돌봄 노동자는 국가에 의해 고용된 공적 인력일 수도 있으며, 요양보호사와 같이 개별 기관에 고용된 개인 임금 노동자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유급 돌봄 노동자는 공적 기준에 의해 일정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마친 전문적 인력으로 이들 인력의 차별성이 돌봄의 공식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공식적 돌봄의 영역은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확대되었으며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는 물론 당사자의 가족까지 돌봄의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공식적 돌봄 서비스는 국가, 비영리센터, 시장 등이 결부되어 돌봄 서비스의 공급이 제공되며 돌봄의 공급이 화폐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또한 공식적 돌봄 서비스는 노동의 제공과 댓가의 지불이 계약관계에 기초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가 평가와 관리의 대상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공식적 돌봄과 공식적 돌봄은 돌봄 제공의 원천, 돌봄 서비스의 제공자, 화폐의 개입여부, 관리 대상성 등에 차이를 갖는다.

장애인을 위한 공식적인 돌봄 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장애인심부름센터, 가사지원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는 낮 시간동안 재할 프

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가사도우미서비스는 장애인의 가사활동지원 및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가와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가사간병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2. 장애인 돌봄 연구의 동향

장애인 돌봄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주로 두 가지 유형으로 전개되어 왔다. 첫 번째 유형은 장애인 돌봄 제도나 인력 등 거시적 맥락에서 장애인 돌봄을 고찰한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는 주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중심으로 장애인 돌봄 제도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 있으며, 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돌봄사업과 돌봄노동에 관한 법적 과제를 분석한 연구[5],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고찰한 연구[2]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소수에 불과하지만 장애인 돌봄에 대한 담론을 다룬 연구들이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6].

두 번째 유형은 장애인 돌봄이 돌봄 제공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탐색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이들 연구는 주로 정신적 또는 지적 장애를 지닌 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 경험이 부모의 삶에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를 밝히는데 집중되어 왔다. 이 유형의 연구들은 신체적 어려움을 지닌 장애인 보다 주로 정신적이거나 지적 문제를 지닌 장애인의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초기 연구들은 정신적, 지적 장애를 지닌 자녀를 돌

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감, 스트레스 등 돌봄 제공자의 부정적 경험을 설명하고자 했다[7-11]. 최근 들어 가족을 돌보는 경험이 부정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사기(Mastery), 만족감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문제의식이 확대되면서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가족의 긍정적 경험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소개되고 있다[12-14].

더불어 돌봄경험과 이에 따른 부정적 또는 긍정적 경험을 단선적인 인과관계의 구조로 설명하던 것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다양한 매개 또는 조절변인들을 밝히려는 연구가 소개되고 있다[14-16]. 양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던 방법론도 다양화되어 장애인 당사자의 돌봄 경험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현상학적 시각에서 조망하는 질적 연구물들이 등장했다[17].

또 하나의 주목할만한 변화로는 전통적으로 돌보는 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어 온 어머니나 여성 가족원을 대상으로 했던 과거와 달리 아버지 또는 남성 가족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돌봄 제공에 대한 경험을 설명하는 연구들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정신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의 돌봄경험을 자녀양육역할의 여섯 개 영역과 관련해 살펴본 연구[18]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 돌봄에 대한 거시 연구는 주로 돌봄 제도의 제도적 정합성을 분석하거나 효과적인 제도 설계에 집중되어 있다[2][5]. 또는 장애인 돌봄 제도의 이념적 지향을 뒷받침 하는 담론의 생산과 분석에 집중되어 왔다[6]. 따라서 장애인 돌봄 제도가 장애인 돌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차 파악된 바 없다.

이와 같은 한계로 장애인 돌봄과 관련된 사회적 서비스가 장애인에 의해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어떤 특성들이 돌봄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현재 실행되는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효과성을 가능하고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초가 되는 유용한 정보와 지식이 매우 제한되어 왔다.

반면 장애인 돌봄의 미시적 행위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장애인의 돌봄을 가족 구성원 간 돌봄 노동의 제공과 수혜라는 비공식적 영역 안에서 다루고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장애인 돌봄에 대한 미시 연구들은 주로 지

적이거나 정신적 장애를 지닌 가족원을 돌보는 부모의 경험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목적을 둬으로써 장애인 돌봄을 가족이라는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영역으로 제한해 다루고 있다[7-11].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해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확대된 공식적 형태의 돌봄이 장애인 돌봄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등 장애인 돌봄의 공식적 영역에 대한 이해가 제한되어 왔다.

또한 장애인 돌봄에 대한 선행 연구는 장애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7-11][14-16] 다수이며 정작 장애인 당사자를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적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지식이 축적되어 있으나 돌봄을 제공받는 장애인의 경험에 대해서는 생산된 지식이나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장애인의 돌봄을 다룬 선행연구는 장애인을 연구대상으로 돌봄을 제공받는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이었으며, 장애인의 돌봄을 가족간의 돌봄행위라는 비공식적 영역을 중심으로 고찰함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공식적 영역이 장애인 돌봄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연구문제 및 분석의 틀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에 기초해, 본 연구는 장애인 당사자의 돌봄에 대한 경험을 비공식적 영역은 물론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한 공식적 영역으로 확대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제시된 문제의식에 따른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장애인의 돌봄욕구는 충족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장애인의 일차적 돌봄 제공자는 누구이며, 장애인 돌봄에서 비공식 및 공식적 지원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와 기타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이용실태는 어떠한가,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이용의 결정변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의 틀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장애인 당사자의 돌봄욕구가 충족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돌봄충족 수준을 지표로 분석했으며,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라 돌봄충족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돌봄충족 수준을 결정하는 변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장애인 돌봄에서 비공식, 공식 영역이 각각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돌봄제공자 중 공식과 비공식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 비공식 및 공식 돌봄 지원의 빈도 등을 분석했다.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가 장애인 돌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실태와 결정변인을 분석했다. 또한 연령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타 돌봄 서비스의 유형에 차이가 있으므로 노인과 비노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기타 돌봄 서비스의 이용실태와 그 결정변인을 분석했다.

표 1. 분석의 틀

분석차원	세부지표
돌봄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충족 수준 ▪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여부별 돌봄충족 수준 ▪ 돌봄충족 수준의 결정변인
비공식·공식 돌봄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식·공식 돌봄 주요제공자 ▪ 비공식·공식 돌봄 지원 빈도
사회적 돌봄서비스 이용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활동보조 이용실태 및 결정변인 ▪ 64세 이하 기타 돌봄서비스 이용실태 및 결정변인 ▪ 65세 이상 기타 돌봄서비스 이용실태 및 결정변인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2011 한국복지패널’ 5차 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했다.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부가조사는 2011년 단 한차례 진행되었기 때문에 2011년 장애인 부가조사, 가구조사, 가구원조사 자료를 이용했다.

한국복지패널은 층화체계표집을 통해 표출된 7072 가구 대상으로 하며 가구조사, 가구원조사, 부가조사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5차년 조사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부가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6034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5차 조사 자료중 1280명 장애인의 가구조사, 가구원조사, 장애인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했다.

2. 측정도구

2.1 돌봄충족

돌봄충족은 ‘귀하는 현재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했다. 응답은 ‘매우 충분하다’의 1점부터 ‘매우 부족하다’의 4점까지로 측정했으며, 높은 점수가 높은 수준의 돌봄충족을 나타내도록 역코딩했다.

2.2 비공식 및 공식적 돌봄의 지원 빈도

돌봄의 지원 빈도는 ‘지난 한달간 일상생활상의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이나 도움을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했다. 비공식적 돌봄의 지원 빈도는 부모·자녀·형제자매, 친척, 친구 및 동료, 이웃사람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은 횟수의 총합으로 측정했다. 공식적 돌봄의 지원 빈도는 종교단체,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직원,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 학교, 활동보조인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은 횟수의 총합으로 측정했다.

2.3 사회적 돌봄 서비스

64세 이하 성인의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이용량은 일상생활훈련을 비롯한 12개 서비스 중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총 개수로 측정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이용량은 급식지원 서비스를 비롯한 12개 서비스 중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총 개수로 측정했다.

2.4 일상생활수행능력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웃 입고 벗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를 비롯해 기본적인 일생활에 해당하는 12개 항목을 통해 측정했다. 응답은 완전 자립, 부분도움, 완전 도움의 3점 척도로 측정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낮고,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돌봄충족, 돌봄의 주요 제공자, 돌봄의 지원 빈도,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이용의 실태 등은 빈도분석과 기술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돌봄충족,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이용량의 결정변인은 다중회귀분석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여부의 결정변인은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4. 분석대상자

장애인 부가조사에 참여한 1280명 장애인 중 18세 이상으로 모든 또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장애인을 제외하고, 일부, 대부분, 또는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한 18세 이상 장애인 1204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대상자의 53.57%는 남성, 46.43%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54(sd=12.9)세로 나타났다. 지체 및 내장장애를 비롯한 신체적 장애인이 93.02%를 차지했으며 정신, 발달장애를 비롯한 정신적 장애인이 6.98%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기혼 유배우자가 62.54%, 사별이 19.44%, 이혼이 5.98%, 별거가 0.91%, 미혼이 10.30%, 기타가 0.83%를 차지했다. 교육적 수준은 무학이 17.77%, 초등학교 졸업이 35.13%, 중학교 졸업이 16.03%, 고등학교 졸업이 22.09%,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이 8.97%로 조사되었다.

		언어장애	7	0.58
		신장장애	26	2.16
		심장장애	10	0.83
		호흡기장애	10	0.83
		간장애	3	0.25
		안면장애	2	0.17
		장루 요루 장애	10	0.83
		간질장애	3	0.25
		비등락장애인	90	7.48
혼인상태	비해당(17세 이하)	3	0.25	
	유배우	753	62.54	
	사별	234	19.44	
	이혼	72	5.98	
	별거	11	0.91	
	미혼	124	10.30	
	기타	7	0.83	
교육수준	무학	214	17.77	
	초등학교	423	35.13	
	중학교	193	16.03	
	고등학교	266	22.09	
	전문대학	33	2.74	
	대학교	61	5.07	
	대학원(석사)	13	1.08	
	대학원(박사)	1	0.08	
직업	없음	777	64.53	
	있음	427	35.47	

표 2.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N	백분율 (%)	
성별	남자	645	53.57	
	여자	559	46.43	
장애 종류	정신	정신장애 (지적장애)	45	3.74
		발달장애 (자폐성장애)	4	0.33
		정신장애	35	2.91
	신체	지체장애	628	53.16
		뇌병변장애	119	9.88
		시각장애	115	9.55
		청각장애	97	8.06

IV. 연구결과

1. 돌봄충족 및 유형별 돌봄 지원

1.1 돌봄충족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나 주변사람들로부터 받은 돌봄의 양이 매우 충분하다는 응답자는 8.28%, 충분한 편이라는 47.93%로 56.21%의 응답자가 비교적 충분한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9.05%는 부족한 편이다, 4.73%는 매우 부족하다고 답해 현재의 돌봄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응답자가 43.78%에 달했다.

표 3. 돌봄충족

구분		N	백분율 (%)
돌봄충족	매우 충분하다	14	8.28
	충분한 편이다	81	47.93
	부족한 편이다	66	39.05
	매우 부족하다	8	4.73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사용여부에 따라 돌봄의 충분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32명 이용자의 돌봄 충분성은 평균 2.44로 활동보조인 서비스 비이용자 137명의 돌봄 충분성 평균 2.40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t=0.34, p=0.73$). 따라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이용여부에 따라 돌봄의 충분성에는 유의미한 집단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별 돌봄충족

구분		N	M	t	p
도움 충분성	이용	32	2.44	0.34	0.73
	비이용	137	2.40		

$p<.05$ $p<.01$ $p<.001$

돌봄의 충분성을 결정하는 결정변인을 모색한 결과, 가처분 소득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 소득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주변 사람 들로부터 받은 도움의 충분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0.00009, t=2.01$).

표 5. 돌봄충족 결정변인

구분	E	S.E	t
Intercept	2.76	0.43	6.48
남성	0.10	0.17	0.59
가처분소득	-0.00009	0.00005	-2.01*
사회서비스	0.02	0.02	0.86
교육수준	0.04	0.07	0.57
신체장애	-0.23	0.18	-1.27
직업있음	-0.11	0.30	-0.36
장애등급	-0.07	0.08	-0.91
adl	-0.002	0.01	-0.17
비공식지지원도	-0.006	0.01	-0.59
공식지지원도	-0.02	0.02	-1.02

F=3.62
 $p<.001$
 $R^2=0.1189$

$p<.05$ $p<.01$ $p<.001$

1.2 돌봄의 주요 제공자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주로 책임지는 일차적 돌봄 제공자의 51.5%는 배우자로 나타났다. 부모가 일차 돌봄 제공자인 경우는 14.2%로 두 번째로 높았다. 자녀가 일차적인 돌봄 제공자인 경우는 12.4%에 달했다. 그 외에 형제자매가 3.6%, 무료 활동보조인이 3.0%, 조부모, 손자녀, 기타 가족, 유료 활동보조인, 무료 가정봉사원이 각각 1.8%, 친척, 이웃, 유료 가정봉사원, 유료 간병인이 각각 0.6%로 조사되었다.

일차적 돌봄 제공자가 가족, 친척, 이웃이나 친구 등 비공식적 체계인 대상자는 86.4%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가정봉사원, 활동보조인, 간병인 등 공식적 체계가 일차적 돌봄 제공자인 응답자는 13.6%에 불과했다.

표 6. 돌봄제공자 분포

구분		N	백분율 (%)	
주요 돌봄 제공자	비공식	배우자	87	51.48
		부모	24	14.20
		자녀(며느리, 사위포함)	21	12.43
		형제자매	6	3.55
		조부모	2	1.18
		손자녀	2	1.18
		기타가족	2	1.18
		친척	1	0.59
		이웃	1	0.59
	공식	유료 가정봉사원	1	0.59
		유료 간병인	1	0.59
		유료 활동보조인	2	1.18
		무료 가정봉사원	2	1.18
		무료 활동보조인	5	2.96
기타	12	7.10		

1.3 지지원의 유형에 따른 돌봄 지원 빈도

지난 한달간 비공식적 제공자로부터 하나 이상의 돌봄 지원을 받은 응답자는 22.1%에 불과했다. 77.0%의 응답자는 일상생활수행을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 제공자로부터 지난 한달간 지원받은 돌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적 제공자로부터 지원받은 돌봄의 횟수는 평균 1.69(sd=6.10)회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

답자의 15.1%는 비공식적 제공자로부터 받은 돌봄 지원 횟수가 5회 이하였으며, 2.83%는 6회 이상에서 10회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공식적 돌봄 지원 횟수가 11회 이상에서 20회 이하인 응답자는 2.5%, 21회 이상인 응답자는 2.51%에 불과했다.

공식적인 지지원으로부터 지원받은 돌봄의 횟수는 최저 0에서 최고 40회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 0.47(sd=2.78)회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공식적인 지지원으로부터 어떤 돌봄도 지원받지 못한 응답자가 전체의 92.5%로 7.5%의 응답자만이 공식적인 제공자로부터 일회 이상의 돌봄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56%는 공식적인 지지원으로부터 받은 돌봄의 횟수가 5회 이하, 0.15%의 응답자는 6회 이상에서 10회 이하, 11회 이상인 응답자는 1.76%에 불과했다.

표 7. 지지원 유형별 돌봄지원

구분		N	백분율 (%)
공식	0	1114	92.52
	1-5	63	5.56
	6-10	2	0.15
	11 이상	21	1.76
비공식	0	938	77.91
	1-5	177	15.1
	6-10	34	2.83
	11이상	55	5.01

2.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이용 실태

2.1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1) 이용실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응답자의 18.9%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75%는 남성, 25%는 여성으로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연령은 49세로 전체 응답자의 평균 연령인 54세 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일상생활기술, 장애 유형, 고용여부를 비이용자와 비교했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일상생활기술력은 20.1로 비이용자의 18.0보다 높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타인

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일상생활기술력의 집단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t=1.38, p=0.17$).

표 8.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별 adl 차이

구분		N	M	t	p
adl	이용	32	20.09	1.38	0.17
	비이용	137	17.96		

$p<.05^* p<.01^{**} p<.001^{***}$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중 직업이 있는 경우는 3.13%에 불과한 반면 비이용자는 7.30%가 직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유무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여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X^2=0.75, p=0.38$). 이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의 주원인이 직업활동이 아니며,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의 직업활동을 촉진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 없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인이 직업활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81.3%는 지체, 내장장애 등 신체적 장애를 지녔으며, 18.7%는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비이용자의 경우에도 신체적 장애가 80%로 다수를 차지했다. 신체적 장애를 지닌 응답자 중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는 19.3%, 정신적 장애를 지닌 응답자 중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는 17.7%로 장애유형에 따라 활동보조인 서비스 이용여부에 차이가 없었다($X^2=0.05, p=0.83$).

표 9. 장애인 특성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여부

구분		이용	비이용	계	X^2
장애유무	신체	81.25 (19.26)	79.56 (80.74)	(100)	0.0460 (0.8302)
	정신	18.75 (17.65)	20.44 (82.35)	(100)	
계		100	100		
직업유무	있음	3.13 (9.09)	7.30 (90.91)	(100)	0.7428 (0.3888)
	없음	96.88 (19.62)	92.70 (80.38)	(100)	
계		100	100		

2) 이용결정변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여부를 설명하는 이항로지스틱 회귀모델을 분석한 결과, 장애등급만이 응답자의 활동지원서 이용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35, p<0.05$). 승비에 의하면 장애등급이 1등급 높아질수록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은 0.7배 증가, 즉 30%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odd ratio=0.7).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장애의 정도가 약해짐을 고려하면, 장애의 정도가 약해질수록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자격이 장애 1, 2, 3등급의 중증 장애인에게만 주어지는 제도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표 10.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여부 결정변인

구분	E	S.E	odd
Intercept	-0.83	0.94	
남성	-0.63	0.43	0.5
가처분소득	-0.00004	0.0001	1.0
교육수준	0.007	0.15	0.99
신체적 장애	0.14	0.53	1.15
직업있음	-0.51	1.10	0.60
장애등급	-0.35	0.15	0.70
adl	0.02	0.02	1.02

$p<.05$ $p<.01$ $p<.001$

2.2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이용

1) 64세 이하 성인의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이용실태

① 이용실태

직업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는 1.79%, 취업알선서비스 이용자는 2.39%로 취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응답자는 모두 4.18%로 나타났다. 일상생활훈련서비스 이용자는 0.90%, 가사원조서비스 이용자는 5.67%, 외출보조서비스 이용자는 4.18%,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자는 2.69%, 이동목욕서비스 이용자는 1.19%,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는 1.19%, 단기보호서비스 이용자는 0.30%로 재가보호서비스 이용자는 16.12%에 달했다. 그룹홈서비스 이용자는 0.30%, 장기시설보호서비스 이용자는 0.60%로 시설보호서비스 이용자는 0.90%에 불과했다. 제시된 10가지 돌봄서비스 중 응답자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수는 최소 0에서 최고 10

의 범주를 보였으며 평균 0.17(sd=0.6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64세 이하 서비스 이용 실태

구분		N	백분율 (%)
직업상담	이용	6	1.79
	비이용	329	98.21
취업알선	이용	8	2.39
	비이용	327	97.61
일상생활 훈련	이용	3	0.90
	비이용	332	99.10
주간보호	이용	4	1.19
	비이용	331	98.81
단기보호	이용	1	0.30
	비이용	334	99.70
그룹 홈	이용	1	0.30
	비이용	334	99.70
장기시설보호	이용	2	0.60
	비이용	333	99.40
여가활동프로그램	이용	6	1.79
	비이용	329	98.21
가사원조	이용	19	5.67
	비이용	316	94.33
외출보조	이용	14	4.18
	비이용	321	95.82
방문간호	이용	9	2.69
	비이용	326	97.31
이동목욕	이용	4	1.19
	비이용	331	98.81

② 결정변인

서비스의 이용정도 즉 이용한 서비스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성별, 교육수준, 가처분소득, 고용여부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어떤 것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의 종류, 장애등급, 일상생활의 기술 등 신체적 및 장애 관련 특성 또한 서비스의 이용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비공식적 체계로부터 받은 도움의 정도만이 돌봄서비스의 이용정도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04, t=-2.62$). 이는 비공식적 체계로부터 제공받은 돌봄 정도가 높을수록 돌봄 서비스의 이용은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2. 서비스 이용 결정변인

구분	E	S.E	t
Intercept	0.89	0.27	3.23
남성	-0.15	0.10	-1.46
가처분소득	0.000005	0.00002	0.29
교육수준	-0.05	0.04	-1.24
신체적 장애	-0.20	0.13	-1.47
직업여부	-0.16	0.11	-1.40
장애등급	-0.05	0.03	-1.54
adl	0.005	0.01	0.40
비공식 지원	-0.002	0.006	-0.33
공식 지원	-0.04	0.02	-2.62**
F=4.22 p<0.0001 R ² =0.1042			

p<.05* p<.01** p<.001***

2)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이용실태

① 이용실태

직업상담, 취업준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응답자는 65세 이상 중 1.86%에 불과했다. 정서적 서비스는 4.46%, 전문상담 서비스는 0.37%로 정서·심리적 서비스 이용자가 4.8%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자는 7.81%, 급식지원서비스 이용자는 3.72%, 가사지원서비스 이용자는 11.90%로 재가서비스 이용자가 23.43%에 달했다.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자는 7.06%,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는 4.83%,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는 0.37%, 단기보호서비스 이용자는 0.37%, 요양시설보호서비스 이용자는 1.12%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가 13.70%를 차지했다. 그 외에 여가서비스 이용자가 0.74%, 주거지원서비스 이용자가 1.86%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응답자 중 88.98%는 제시된 서비스 중 하나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응답자는 5.27%, 두 개는 2.40%, 세 개는 1.28%, 그리고 네 개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응답자도 2.08%에 불과했다. 65세 이상의 응답자가 이용한 서비스의 수는 평균 0.23(sd=0.80)에 불과했으며, 최소 0에서 최대 6개의 분포를 보였다.

표 13. 65세 이상 서비스 이용 실태

구분		N	백분율(%)
직업상담 및 취업준비	이용	5	1.86
	비이용	264	98.14
정서적 서비스	이용	12	4.46
	비이용	257	95.54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	21	7.81
	비이용	248	92.19
급식지원	이용	10	3.72
	비이용	259	96.28
전문상담	이용	1	0.37
	비이용	259	99.63
주거지원	이용	5	1.86
	비이용	264	98.14
여가생활	이용	2	0.74
	비이용	267	99.26
요양시설보호	이용	3	1.12
	비이용	266	98.88
주야간 보호	이용	1	0.37
	비이용	268	99.63
단기보호	이용	1	0.37
	비이용	268	99.63
가사지원서비스	이용	32	11.90
	비이용	237	88.10
방문간호(간병)	이용	19	7.06
	비이용	250	92.94
병문 및 이동 목욕	이용	13	4.83
	비이용	256	95.17

② 결정변인

65세 이상 응답자의 돌봄서비스 이용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고용여부 등의 인구사회적 변인은 돌봄서비스의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및 장애관련 특성 중에는 일상생활기술 능력과 장애등급이 돌봄서비스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서, 일상생활능력이 낮아서 타인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높을수록(b=0.05, t=4.88), 장애의 정도가 높을수록(b=-0.13, t=-3.32) 돌봄서비스의 이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장애의 유형(지체 장애 대 정신장애)은 돌봄서비스 이용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적 체계로부터

도움을 받은 정도는 젊은 사람의 돌봄서비스 이용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표 14. 서비스 이용 결정변인

구분	E	S.E	t
Intercept	0.62	0.52	1.19
남성	-0.07	0.13	-0.56
가처분소득	-0.00006	0.00004	-1.58
교육수준	-0.02	0.05	-0.35
신체적 장애	-0.23	0.46	-0.50
직업 있음	-0.08	0.15	-0.53
장애 등급	-0.12	0.04	-3.32***
adl	0.06	0.02	4.88***
비공식 지지	-0.003	0.007	-0.40
공식 지지	0.05	0.01	3.75***
			F=10.25 p<0.0001 R ² =0.2518

p<.05* p<.01** p<.001***

V. 결론

본 연구는 돌봄위기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돌봄의 사회화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의 돌봄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5차년 장애인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장애인 돌봄의 충분성, 장애인 돌봄에서 비공식과 공식체계의 역할, 그리고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이용 실태와 그 결정변인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약 50%의 장애인은 제공 받고 있는 돌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해 돌봄부족(Care deficit)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간 비공식적 체계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장애인은 약 77%, 공식적 체계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장애인은 약 90%로 돌봄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돌봄욕구가 충분히 해결되고 있는가를 고찰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돌봄충족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재하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장애인의 돌봄욕구는 미충족인 상태로 방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 돌봄에 대한 선행연구는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이 높은 수준의 부양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 당사자 역시 충분하지 못한 돌봄부족으로 인해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경험에 편중되어 있던 장애인 돌봄 연구가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을 균형 있게 고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면서 동시에 장애인에게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돌봄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돌봄충족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지 못했으며 가처분 소득만이 돌봄충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서비스 구매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사회서비스 이외에 일반 시장을 통해 돌봄욕구를 해결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돌봄 서비스 시장이 잘 발달된 국가들의 경험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 결과는 돌봄에 대한 서비스 시장이 충분히 성숙한 경우에는 시장 매커니즘을 통해 돌봄에 대한 욕구가 적절히 해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장애인의 주요 돌봄 제공자는 가족을 비롯한 비공식 체계였으며, 공식체계가 주요 돌봄 제공자인 장애인은 14% 미만의 일부에 불과했다. 돌봄의 지원 빈도 또한 비공식 체계로부터 받은 지원의 빈도가 공식 체계로부터 받은 지원의 빈도보다 약 세 배 이상 높게 나타나, 돌봄의 사회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돌봄은 여전히 가족을 비롯한 비공식 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돌봄의 사회화로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마련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돌봄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이 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말해준다. 이는 우리나라 가족은 부모 또는 자녀의 돌봄을 타인이나 사회적 수단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거부감이 높아 외부 자원을 사용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선행연구[10][11]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64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 돌봄과 관련된 사회서비스 이용 수는 평균 0.17개로 매우 저조했으며,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에도 평균 0.23개에 불과했다. 이는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증가로 돌봄의 사회화가 가시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장애인 돌봄에서 이들 서비스가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특히 64세 이하 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이용 수는 비공식 체계로부터의 지원 빈도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비공식 체계에 의한 돌봄지원과 사회서비스가 장애인 돌봄에서 보완재로써 기능하기보다 대체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확대는 64세 이하의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원의 노동시장 참여나 사회적 활동 참여를 이끌어내는 효과로 연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는 사회적 서비스의 이용이 장애가족을 돌보는 여성 가족원의 사회참여 가능성을 높인다는 국외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에 65세 이상 장애인은 비공식 체계에 의한 돌봄 지원이 높을수록 사회서비스 이용 수도 유의미하게 증가해 비공식 체계에 의한 돌봄지원과 사회서비스가 서로 보완재로써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인의 연령층에 따라 돌봄에 대한 비공식과 공식체계의 역할규정,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이용 행태가 상이해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장애인은 주로 가족이라는 비공식 영역에 의존해 돌봄욕구를 해결하고 있으나, 돌봄충족의 정도가 높지 않았다. 또한 돌봄의 사회화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서비스가 확대되었으나 장애인 돌봄이 실질적으로 사회서비스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은 미비했다. 그럼에도 사회서비스는 비공식적 돌봄의 보완제와 대체제로써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더욱 다양하게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이 장애인의 돌봄욕구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현재의 사회서비스 또한 장애인 돌봄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무용론이나 한계를 지적하기 보다 사회서비스를 다양화 하고 이의 사용을 위한 방해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해 사회서비스가 장애인의 돌봄욕구를 충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정책적 노력의 필요함을 강조한다.

더불어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질 관리를 통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가족의 신뢰를 높이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거부감을 제거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 문헌

- [1] 김성희, “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시사점”, 보건복지 이슈와 포커스, 제166호, pp.10-17, 2012.
- [2] 오세근, “요양보호사 수발노동의 실태와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에 관한 연구: 쉼없는 일자리 여부 판별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제20권, 제2호, pp.101-136, 2010.
- [3] 장혜경, 김영란, 조현각, 김고은, 박경희, *공식영역의 돌봄 노동 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007.
- [4] 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p.53, 2014.
- [5] 방준식, “돌봄사업과 돌봄노동에 관한 법적 과제: 노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9권, 제2호, 2012.
- [6] 이동욱, “한국의 장애인 돌봄제도와 모성담론에 관한 연구”, 미디어, 젠더&문화, 제14권, pp.111-139, 2010.
- [7] 김나영, 이승희, “장애아동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스트레스와 우울, 가족결합력”, 발달장애학회지, 제5권, 제2호, pp.31-42, 2001.
- [8] 김정아, *장애아동의 발달연령에 따른 취업모와 비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9] 김희수, *장애아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대처자원과의 관계: 부모통제소와 사회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10] 이삼연, “장애아모의 스트레스 대처 전략과 적응

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38권, pp.180-205, 1999.

- [11] 조인수, 김규환, “정신지체아 부모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발달장애학회지, 제4권, pp.73-87, 2000.
- [12] 김고은, “성인 지적장애인을 돌보는 노년기 어머니의 우울: 가족관계 만족의 중대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38권, pp.239-259, 2011.
- [13] 김연수, 정신장애인 보호제공 가족원의 돌봄경험 평가와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14] 이예란, “장애아동 어머니의 돌봄 행위 구조 모형”, 대한간호학회지, 제39권, 제5호, 2009.
- [15] 성준모, “정신장애를 가진 어머니의 심리증상과 자녀의 탄력성과의 관계에서 모자관계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1호, pp.219-238, 2009.
- [16] 윤명숙, 박은아, 최수연, “정신장애인 가족의 돌봄 경험과 삶의 질: 차별경험의 조절효과”, 한국장애인복지학, 제21권, pp.91-112, 2013.
- [17] 이혜경, “여성정신장애인의 모성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30권, pp.162-198, 2008.
- [18] 김예랑, “자녀양육역할의 6개 영역과 관련하여 정신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의 돌봄경험에 대한 연구: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제16권, 제2호, 2012.

저 자 소 개

이 효 성(Hyo-Sung Lee)

정회원



- 1993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00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9년 9월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 수료)

▪ 1993년 6월 ~ 현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직업재활 업무 종사

<관심분야> : 장애인 직업재활

고 그 린(Greene Ko)

정회원



- 2013년 3월 ~ 현재 : 가천대학교 문화역사연구소 연구인턴 수련생
- 2012년 3월 ~ 현재 :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재학

<관심분야> : 장애인 교육권